

각 보고서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2021년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2022.04.11

'21년말 기준 연금저축 총적립금은 160.1조 원으로 전년(152.5조 원) 대비 7.6조 원 증가(5.0%↑)함. 상품별로는 보험이 112.0조 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69.9%를 점유하였으며, 펀드(24.3조 원, 15.2%), 신탁(17.0조 원, 10.6%) 등임. 시사점으로는 ① 20~30대 연금저축상품 관심 증대, ②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필요성, ③ 연금저축계좌 이체 제도 활용 필요임

2021년도 금융민원 및 상담동향

금융감독원 2022.04.11

'21년 금융민원은 87,197건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함. 보험(△2,693건, 5.1%↓), 비은행(△2,067건, 12.1%↓)민원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은행(+145건, 1.2%↑) 및 금투(+1,478건, 19.2%↑)민원은 증가함. 평균 처리기간은 41.2일로 전년 대비 12.2일 증가, 민원수용률은 34.6%로 전년 대비 2.2%p 하락함

(가칭)카카오손해보험(주) 보험업 본허가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 2022.04.13

금융위원회는 '22.4.13일 제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가칭)카카오손해보험(주)의 보험업 영위를 허가하였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새롭게 설립되는 보험사가 소비자 편익을 높이면서도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임

2022년 3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금융위원회 2022.04.13

'22.3월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6조 원 감소하여, 전월(△0.3조 원) 대비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는 등 최근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음. 주택담보대출은 전월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감소세가 확대되는 모습임

주요 만성질환 관리지표 악화, 건강지표의 지역 간 격차는 여전

질병관리청 2022.04.13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비만율, 고혈압·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증가한 반면,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감소하여 만성질환 관리 수준이 악화됨. 흡연, 음주, 걷기실천율 등 건강행태 지표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개인위생 지표는 '20년 대폭 개선된 이후' '21년은 소폭 감소함. 주요 건강지표의 시·도 간 격차는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지역 간 차이가 커 대책 마련이 필요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2022.04.05

2022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주택 관련 대출금액을 제외함.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위해 관련 금융정보를 확보해야 하나, 현재 방식은 비효율적임. 이에 금융정보 제공기관에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하고,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주택금융부채 반영 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2022.04.06

정부는 2012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자영업자 약 425만 명 중 가입자수는 약 3만 명으로 약 0.7%에 불과하고, 저조한 가입률의 주된 이유는 보험료 부담임. 이에 보험료 지원 및 체납액 대납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가입률을 제고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2022.04.06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확보 방식은 당사자 개개인이 직접 금융정보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이에 금융기관의 주택대출정보를 일괄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일괄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청자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2022.04.06

정부는 2019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를 지급함. 한편,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등 모성보호를 위한 소득은 비과세 대상임. 이에 유사한 성격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2인 2022.04.07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두배로 늘어난 반면, 평균 수익률은 연 1.8%에 그쳤음.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률 제고 노력 부족이 지적됨에 따라 평가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의 경우 운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퇴직연금 수익률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

Amendments to the Insolvency Arrangements for Insurers: Response to Consultation

영국(GOV.UK) 2022.04.07

영국 재무부는 지급여력 관리에 실패한 보험회사의 채무경감(write-down) 절차에 대한 법 개정을 위해 2021년 8월까지 진행한 의견 수렴의 결과와 재무부 답변을 발표함. 여기에는 채무경감 관리인 임명과 예금보험기관(FSCS) 재정에 대한 논의가 포함됨

EIOPA issues supervisory statement on supervision of run-off undertakings

유럽(EIOPA) 2022.04.07

EIOPA는 런오프 거래에 대한 감독 성명서를 발표함. 동 성명서는 런오프 고유의 특성 및 위험과 비례성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 이전에 대한 고품질의 집약적인 감독을 적용하기 위함임

보험대리점 업무보고서 제출 부담 경감을 위한 법 시행규칙 개정

일본(FSA) 2022.04.12

일본 금융청은 대형 보험대리점 업무보고 의무화 시행 이후 5년 만에 대리점의 업무보고 작성 부담 경감과 자율적인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청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필수 정보 항목의 축소를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였음

영세기업 발전을 위한 금융 지원 업무 강화 통지 발표

중국(CBIRC) 2022.04.06

중국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는 '2022년 영세기업 발전을 위한 금융 지원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1)안정성 유지 및 금융 공급 지속 개선, (2)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및 신용대출 자원 배분의 효율성 향상, (3)중점/취약분야의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 (4)영세기업 전문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종합금융 서비스 능력 향상 (5)신용정보 공유 활용 강화 및 영세기업 용자 촉진 추진 등을 제시함

"중국 금융안정법"(의견수렴안) 공포

중국(GOV.CN) 2022.04.07.

4월 7일 중국 정부는 금융리스크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리스크 방지, 해소, 처리, 법적 책임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국 금융안정법"(의견수렴안)을 공포함. 동 법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존의 예금보험제도 외에 별도 금융안정기금제도를 도입할 것임

Superannuation trustees strengthen governance practices following ASIC surveillance of investment switching

호주(ASIC) 2022.04.06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퇴직연금 수탁자의 사업운영에 있어 투자전환시 발생하는 내부 갈등을 해결하는 감독 시스템이 허술한 것을 발견하고 시정을 요청함. 이에 퇴직연금 수탁자는 내부 정책을 수립하고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관련 절차를 개정함